



윤미향 의원에 대한
색깔 탄압 반대

2면

총련을 북한 당국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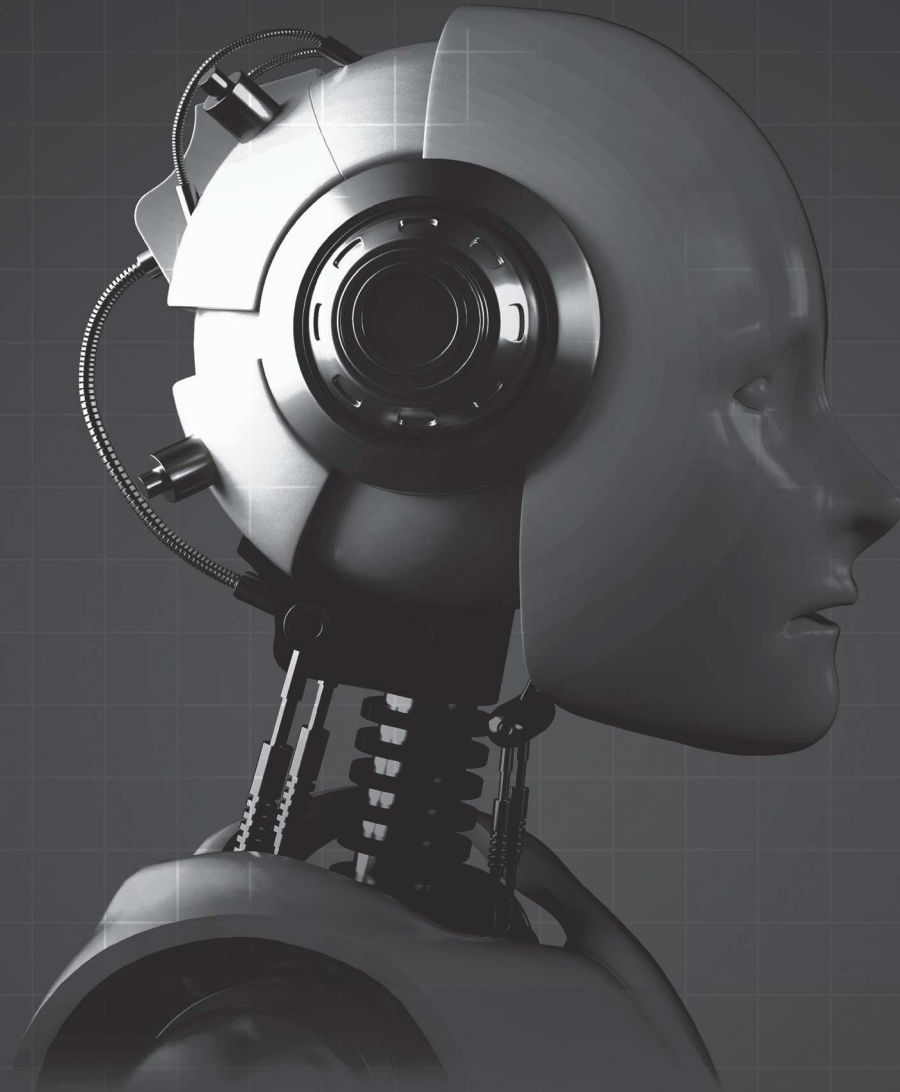
2~3면

오세훈의
임옥상 작품 철거와
캔슬 컬처

3면

알렉스 칼리니코프 논평
수감된 보리스 카갈리츠키에게
연대를

7면



AI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까?

관련 기사 4~7면

이렇게 생각한다 관동대지진 학살 희생자 추도식 참석이 “반국가행위?” 윤미향 의원에 대한 탄압 멈춰라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우파 언론들이 윤미향 의원(무소속)에 대한 색깔 공격을 펴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9월 1일 일본 도쿄 요코야마초 공원에서 열린 관동대지진 학살 사건 100주기 희생자 추도식(이하 추도식)에 참석했다.

여권과 우익은 이 행사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의 국가전복 기도 행사”이며, “윤 의원도 그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윤석열은 9월 4일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서 사실상 윤 의원을 겨냥해 “반국가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조총련(총련)은 반국가단체”라고 부연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제출했고, 통일부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친북 단체를 접촉했다며 윤 의원에게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했다.

또한 우익 단체들인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 등은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국힘 소속 서울시의원 이종배도 윤 의원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뺄어내고 보는 색깔론

그러나 정부의 공격은 전제가 돼야 할 간단한 사실부터 과장·왜곡돼 있다. 윤 의원이 참석한 행사는 총련이 단독 주최한 게 아니라 시민단체인 조선인 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주최한 것이다.

이 시민단체는 1972년 오키나와에서 결성돼 도쿄 등 일본 전역에 지역조사단을 두고 옛 일본 제국의 전쟁 범



8월 31일 피해자 구학영을 조문한 윤미향 의원

죄를 밝히고 알리는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다. 총련뿐 아니라 일본의 진보적인 학자, 문화인, 법률가, 지역 시민운동가 등이 두루 참가한다.

또, 윤 의원이 참가한 추도식은 1963년부터 50년 동안 매년 9월 1일에 열렸고 40여 년간 도쿄도지사들이 꾸준히 이 행사에 추도문을 보냈다.(물론 고이케 유리코 현 도쿄도지사는 2017년부터 추도문을 보내지 않고 있어 일본 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다.) 올해 9월 1일 추도식에도 시민 수백 명이 참가했다.

일본 기시다 정부가 관동대지진 학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모른 척하고 있을 때, 윤 의원은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행사에 참가했다. 과연 어느 쪽이 문제인가?

지속적 차별로 고통받아 온 총련 지지 재일동포들을 북한 지배 관료와 동일시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재일동포 사회는 고국을 북한으로 보는 총련과 남한으로 보는 재일본

대한민국민단(민단)으로 양분돼 왔다.

1945년 식민지 해방 이후 많은 재일동포들이 여러 이유로 일본에 남겨졌고, 한반도가 남북으로 쪼개진 것은 그 이후다. 총련 또는 민단으로 불리는 불가피한 양자택일이었다.

위선

남한의 군사 독재 정권들은 재일동포 간 분열을 이용하고 민단 내 우익을 끌어들이며 해외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다. 술한 재일동포들이 간첩 조작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이후로도 남한 정부는 재일동포들이 차별로 고통받을 때는 차갑게 외면하면서, 필요할 때만 민단 조직을 이용해 왔다.

지금도 국민의힘과 우파 언론들은 윤 의원을 비난할 때 민단도 9월 1일 관동대지진 희생자 추모 행사를 열었는데, 왜 총련 행사로 갔냐고 비난한다.

그러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단 측 행사는 “조선인 학살을 외면하는 일본 정부에 진상 규명을 명확히 요구하지 않았고, 희생자 추도와 양국의 상호 이해를 강조했다.”

이는 일본 고위 정치인들, 주일 한국대사관, 한일의원연맹 등 이 행사의 참석자 면면을 봐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를 직시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촉구한 다른 추도식에 윤 의원이 참가한 것이 옳았다.

마녀사냥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힘 등 우파들은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용인 등 일본 제국주의 지지 노선에 대한 대중의 광

범한 불만을 탄 데로 돌려 보려고 윤미향 의원을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동 대학살 추도식 문제와 상관도 없는 일들까지 도마에 올려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 윤 의원의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는 등 윤 의원의 전 보좌관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는 등.

그러나 윤 의원 남편의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결돼 오히려 국가가 배상했다. 윤 의원 보좌관 건은 그저 혐의만 제기된 수준이다. 무엇보다 이것이 윤 의원 본인과 무슨 상관인가?

윤 의원에 대한 색깔론 공격은 윤석열이 직접 사상 전투를 독려하고 정부가 홍범도 홍상 철거 등 역사 전쟁에까지 나서며 강경 우익 공세를 펴고 있는 일의 연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9월 1일 “간토대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 일본 정부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박광온 원내대표)고 말했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노선을 비판해 왔다.

그러나 9월 1일 이후 우파들이 윤미향 의원을 공격하자 민주당은 비열하게도 윤 의원이 더는 자당 의원이 아니라며 몸을 사리고 있다.

본지는 윤 의원의 (진보 민족주의·민중주의) 정치가 위안부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에 부족하다고(몇 년 전에) 비판했어도, 그가 의원직을 박탈당하거나 형사 수감된다거나 우파들에게 모욕당할 일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정의당도 윤 의원 방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윤미향 의원에 대한 마녀사냥과 색깔론 공격에 선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배경 체크

총련을 북한 당국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와 우파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를 북한 국가와 동일시하면서, 합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재일동포 단체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뿐이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적(한국적)을 얻지 않은 ‘조선적’ 재일동포를 잠재적 북한 간첩쯤으로 취급하며 입국을 흔히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조선적의 ‘조선’은 북한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분단 이전의 한반도를 뜻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조선적은 엄밀히 말하면 국적이 아닌 출신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1945년 한반도가 일제강점에서 해방된 이후 60만여 명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대부분 귀국 경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 때문이었다. 물론, 북한 귀국 희망자의 경우 북한-일본 사이의 단절 때문에 못 돌아간 경우도 있었다.

이 조선인 60만여 명에게 일본 정부는 ‘조선적’을 부여한 뒤 오랜 세월 제도적으로 또 시스템 상으로 차별했다.

재일동포들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적 취득이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조선적을 유지하는 재일동포가 현재도 3만여 명이나 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친북 성향으로 싸잡아 간주하고 차별해 왔다.

‘총련 대 민단’으로 대표되는 재일동포 내 친북/친남 갈라치기는 일본 사회에서 차별받고 배제당하며 고통받아 온 재일동포들을 이중 삼중으로 짓눌러 왔다.

총련과 민단의 탄생과 대립은 한반도가 남북으로 쪼개져 냉전적인 대립이 지속된 과정의 일부였다.

▶ 3면으로 이어짐



오세훈의 작품 철거

오세훈의 임옥상 작품 철거를 묵인해선 안 된다

정진희

9월 5일 서울시청 오세훈이 임옥상 작가의 성추행 유죄 판결을 이유로 ‘위안부’ 추모 공원인 남산 ‘기억의 터’에 있던 ‘대지의 눈’ 등 핵심 조형물 2개를 철거했다.

최근 임옥상 작가는 2013년에 자신의 연구소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기억의 터는 2016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과 ‘기억의 터’ 조성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시민 1만 9755명의 모금(3억 1712만원)에 힘입어 만들어진 공원이다. 정의기억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해당 작품 철거를 옹호해 반대했다.

민중미술가로 유명한 임옥상의 많은 작품이 저항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서울 중구 전태

일다리 위에 세워진 전태일 동상이다. 작품 중에는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를 그린 것도 있다.

〈조선일보〉 등 우파 언론과 오세훈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크게 보도하며 임옥상 작품 철거 여론 조성에 나선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서울시 요구로 전태일 재단은 ‘전태일 동상 존치·교체 숙의위원회’를 통해 동상 철거 여부를 결정하는 논의에 들어갔다. 이 동상도 2005년 양대 노총 등 노동자·시민의 모금으로 설치됐다.

오세훈의 임옥상 작품 기습 철거는 여성 인권 존중과 무관한 역겨운 위선이다. 그저 역사적 기억(민주주의의 기억) 지우기가 목적이다.

서울시는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존치하는 것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세훈이 지도적 당원인 국민의힘이야말로 위안부 피

해자들을 모욕해 온 장본인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 면책 합의를 했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합의 철회 요구를 국민의힘은 철저히 무시했다.

윤석열 정부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에게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효화시켰다.

오세훈은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일본의 전쟁 범죄를 눈감아 주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물론 임옥상의 성추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실제로 그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우파가 캔슬 컬처를 이용해 그의 작품들을 철거하는 것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그의 작품이 성추행 찬양 작품도 아니고, 범죄의 산물도 아닌데, 직결되지도 않는 문제로 정부는 우파에게 불리한 역사 지우기를 이미 실행하고 있다.

캔슬 컬처의 모순

제국주의와 노동자 억압, 민주적 권리 침해를 지지하고 여성 차별을 온존시켜 온 우파가 성폭력 사건을 이용하는 것은 실로 역겹다.

교활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우파가 여성운동 등 차별 반대 운동에서 널리 사용되는 ‘캔슬 컬처’를 이용해 자신의 불순한 목적을 감춘다는 점이다. ‘캔슬 컬처’는 잘못된 언행을 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학교나 직장, 공동체에서 추방하려는 활동을 총칭하는 말이다.

오세훈과 국민의힘, 〈조선일보〉 등 우파가 여성단체들의 ‘기억의 터’ 철거 반대를 임옥상의 성추행을 비호하는 것처럼 비난한 것은 왜곡이다.

그러나 정의연 등이 임옥상 작품 철거는 “환영”하지만 기억의 터 철거는 반대한다고 선별해 주장한 것에는 난점이 있다. 여성단체들은 철거된 ‘대지의 눈’ 등은 임옥상 개인의 작품이라고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과 여러 작가와 활동가, 모금에 동참한 시민들이 함께 만든 상징물이라며 철거에 반대했다. 하지만 기억의 터가 순전히 임옥상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고는 해도, 철거된 조형물은 임옥상이 주도한 작품이다.

사실 여성단체들이 캔슬 컬처 같은 과도한 방식을 지지하고 실천해 온 것을 지금 우파가 적극 이용해 역공을 펴고 있는 것이다.

캔슬 컬처는 차별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와 그 수호자들이 아니라,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개인들을 규탄하고 배척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 대상은 대개 평범한 사람들이고, 문제의 상대적 경중을 흐리는 등 여러 난점이 있다(관련 기사: 본지 433호 **캔슬 컬처 차별에 맞선 효과적 방법?**). 그러나 차별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뿌리내리고 있으므로 지배계급이 주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캔슬 컬처의 핵심 모순은 지배계급은 그런 방식으로 약화되지 않는 반면, 도덕주의적 찍어내기 방식으로 인해 평범한 사람들과 좌파 사이에서는 갈등이 심해지고 운동이 분열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물론 좌파는 그 누구의 성폭력이나 여성 차별적 언행이라도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비판 대상의 다른 업적들을 무효화시키는 환원론에 따라서도 안 될 것이다.

예컨대 폴 고갱이 타히티의 10대 여성과 성관계를 했고 폴리네시아 사람들에게 대한 인종적 편견을 드러냈다 해서 해외 여성단체들이 그의 작품 전시를 ‘캔슬’한 것은 지나친 일이었다.

다른 예로 줄리언 어산지의 성폭행 혐의와 별개로 그를 미국 제국주의자로부터 방어해야 했(한다).

▶ 2면에서 이어짐

해방 이후 일본에 남은 동포들은 당장의 어려운 상황을 서로 협력해 해결하려고 조선인 단체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45년 10월 재일동포들의 전국적 통일단체인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조련이 곧 일본공산당 친화적 성향을 띠자(이후 총련으로 발전), 이를 반대한 우파 민족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계가 1946년 10월, 반공을 기치로 민단을 결성했다.

민단은 이승만 독재 시기에 이승만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분열했다. 그러다 1961년 박정희 정권 등장을 기점으로 좌파(이후 한통련으로 발전)가 떨어져 나가면서 더한층 우익적인 남한 정부 친화적 조직이 됐다. 민단에 다소 무관심했던 이승만과 달리, 박정희는 전폭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며 민단을 끌어들이고 이용했다.

박정희는 민단을 비판하며 이탈하거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한 재일동포 유학생들을 손쉬운 간첩 조작의 먹잇감으로

삼았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총련을 통해 북한 지령을 받았다는 식이었다.

한편, 1955년 발족한 총련은 초기부터 북한 정권과 긴밀한 관련을 맺었다.

총련은 북한 정부가 지원해 준 돈으로 재일동포 학교(조선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했다. 북한 정권은 한국전쟁 이후 단절된 남한·일본 정부와의 대화 통로를 여는 데에서 재일동포 내 입지를 활용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

그럼에도 북한 관료들과 총련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북한 관료들은 북한 사회의 지

배계급인 반면, 총련은 일본 내에서 차별받는 소수 인종의 조직이다.

일본 공안기관은 총련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탄압한다. 때때로 그 칼날이 조선학교를 향하기도 한다. 일본의 우익들도 총련과 조선학교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

이처럼, 재일동포들은 일본 지배자들과 우익의 차별과 억압에 고통받으며, 일본·남한과 북한 국가 사이의 적대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적 희생물이 되고 있다.

김승주

존 패링턴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초청 강연

AI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까?

이 글은 같은 제목으로 열린 9월 4일 노동자 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다. 시청자 질문·의견과 연사의 답변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QR 코드의 영상에



오늘의 주제는 인공지능에 대한 것입니다. 즉, 과연 로봇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까입니다.

로봇과 컴퓨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의식과 지능이란 무엇인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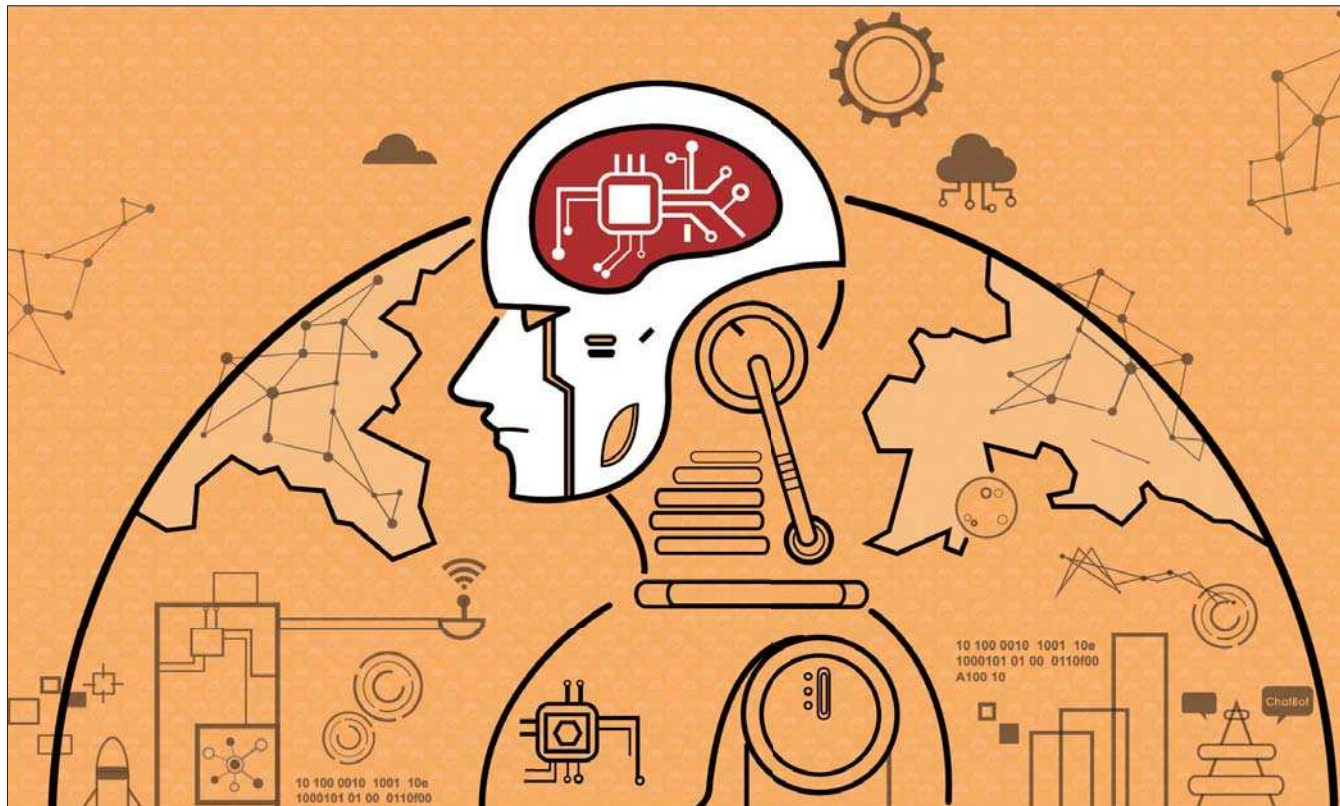
인간의 의식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고, 인간은 다른 동물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문제는 아주 오래된 화두입니다. 아마 선사시대 때부터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의식이 무엇인지를 근대에 와서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 중에 특별히 중요한 인물로 르네 데카르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그는 인체를 일종의 기계처럼 여길 수 있다고 주장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데카르트는 의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혼이나 인간의 정신만큼은 과학으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보는 관점은 이후 인간의 의식에 관한 많은 논의에서 문제를 낳게 됩니다.

저는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유물론자로서 인간의 정신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과학적이려면 인간의 의식을 생물학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환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의식은 유전자와 환경적 요인 둘 다의 산물이고, 유전자와 환경, 그리고 의식이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게 상호작용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쓴 어떤 글을 읽은 것이었습니다. 엥겔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르크스의 친구, 조직가, 정치사상가로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엥겔스는 자연과학도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엥겔스는 한 소논문[‘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는 데서 노동이 한 구실’]에서 그림에서와 같이 인류의 조상이 나무 위에서 내려와 두 발로 걷게 된 것이 인간 진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립보행을 하면서 손이 자유로워졌고 도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도구 사용은 인간이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체계적 일부가 됩니다.(슬라이드1)

물론 자연의 모든 동물 중에 인간만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구를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간뿐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지속적으로 도구를 발전시키는 것도 인간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구와 언어 그리고 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간이 도구를 사용해 주변 세계를 변화시키는 방식이 집단적이고 협력적이고 사회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언어가 발달하게 됩니다.

도구 사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연에는 인간 말고도 소리를 이용해서 서로 소통하는 동물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언어는 사뭇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인간의 언어만이 ‘개념화’, 즉 추상적 개념을 이용해서 세계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시간’, ‘공간’, ‘과거’, ‘현재’, ‘미래’, ‘너와 나의 구분’ 등은 몹시 추상적인 개념이고, 다른 동물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특징, 즉 도구와 언어를 사용해서 주변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특징에서 또 다른 변화가 생겨났는데 바로 인간의 뇌가 커진 것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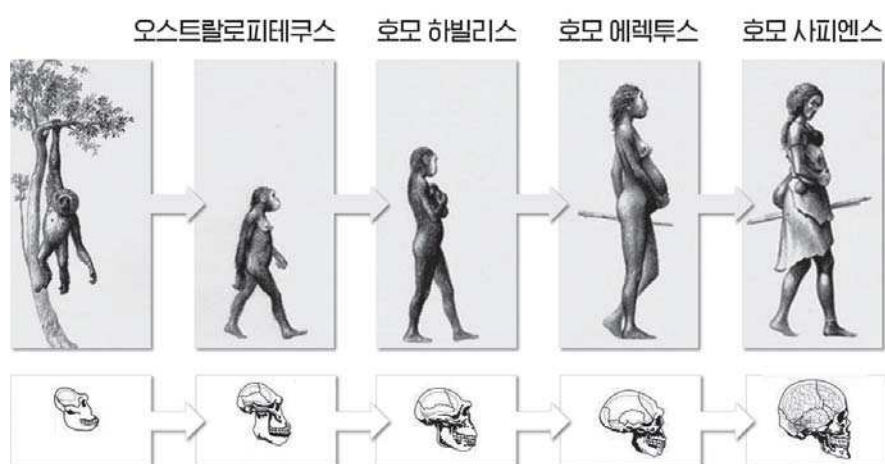
니다.

인간의 뇌는 같은 체구의 유인원에 비해 3배가량 큼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의 뇌가 구조나 기능 면에서도 다른 동물과 전혀 다르다는 증거가 갈수록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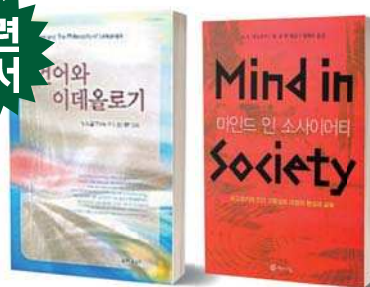
제가 인간의 의식에 흥미를 갖도록 해 준 주요 인물이 2명 더 있는데 둘 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직후에 활동했습니다. 한 명은 레프 비고츠키라는 심리학자이고, 다른 한 명은 발렌틴 볼로쉬노프라는 언어철학자입니다. 둘 다 러시아 혁명의 여파 속에서 인간의 의식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견해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의 견해는 바로 언어가 인간의 의식에서 절대적으로 중심적 구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주변 세계를 변화시킬 때 도구라는 수단을 사용하듯, 우리가 각종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뇌를 변화시키는 수단이라고 봤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인류의 뇌가 변한 것이든, 개별 인간이 출생 후 성장하는 과정에서 뇌가 변하는 것이든 모두 말입니다.

레프 비고츠키의 사상에 대해서는 저 말고도 많은 이들이 책을 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쓴 책 《마인드 시프트》[2021년에 영어로 출판] 또는 《의식》[2023년 10월 영어로 출판 예정]의 특징이라면 현대 신경과학의 성과를 근거로 비고츠키 등이 의식을 연구할 때 사용한 개념들의 유용성을



슬라이드1 선조들이 나무에서 내려와 직립 보행을 하면서 도구를 만들었고, 그 결과 뇌가 발달했다



언어와 이데올로기

볼로쉬노프 지음, 송기한 옮김
푸른사상, 359쪽, 20,000원

마인드 인 소사이어티

비고츠키 지음, 이병훈·이재혁·허승철 옮김
학이시습, 254쪽, 18,000원

제 책에서는, 마르크스주의 심리학자인 레프 비고츠키와 마르크스주의 언어철학자 발렌틴 볼로쉬노프가 개척한 이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현대 신경과학의 성과가 인간의 정신과 뇌에 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다루려 했습니다.

분명 인류는 다른 포유류나 영장류와 많은 특징을 공유합니다. 다른 동물들도 생각을 하고, 기억력을 갖고 있고,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는 언어를 쓰고, 또 도구를 사용해서 주변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점 때문에 다른 동물과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정신에서는 전혀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 그것 하나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 의식을 다룰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른바 무의식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런 지적은 별로 논쟁적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것들, 많은 생각들을 많은 적든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익숙한 것일수록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도 수행하곤 합니다.

무의식에 대한 좀 더 논쟁적인 것 하나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관련돼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사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배치되는 듯이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 무의식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 프로이트가 말한 것 중 많은 것이 구식이고 반동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프로이트가 인간의 정신을 이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하게 기여한 바를 간과하는 것은 크나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프로이트가 인간의 정신이란 매우 동태적인 것이라고 본 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여입니다. 그

리고 그런 관점에서 인간의 의식을 바라보면, 왜 일부 사람들이, 예컨대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에 나서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성소수자 혐오의 심리적 근원에서 무의식적 공포나 욕망이 하는 구실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책에서는 비고츠키[와 볼로쉬노프 — 역자]가 중시한 언어의 구실 등을 기초로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하고, 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비고츠키는 인간의 정신이 내적 언어라는 것을 기초로 작동한다고 봤고, 특히 반사적 성격이 강한 의식일수록에서 더 그렇다고 봤습니다. 언어의 유동성[신축성]은 우리가 모순되는 생각을 동시에 갖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과의 비교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대체 인공지능과 무슨 관계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언론이나 TV, 뉴스, 각종 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이라 불리는 컴퓨터 기술이 인간의 지능을 따라잡고 있고 심지어 능가할 수 있고 그것이 아주 우려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세계를 머지않아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저는 회의적입니다. 컴퓨터의 ‘지능’이 점점 인간과 유사해지고 있다는 생각은 인간 지능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대단한 것인지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컴퓨터가 인간을 따라잡고 있다는

▶ 6면으로 이어짐

따져 본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최근의 연구들은 인간의 각종 뇌세포와 뇌의 유전물질이 진화를 거치며 변해 온 과정이 비고츠키의 주장(뇌의 변화에서 언어가 중요한 구실을 한다)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고, 생물학자로서 저는 이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뇌가 얼마나 복잡한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뉴런(신경세포)뿐 아니라 ‘신경아교세포’도 뇌 작용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런 세포들이 작동하는 방식이 인간의 경우에는 여느 동물과 다른 것 같습니다.

또한 DNA뿐 아니라 RNA도 인간의 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도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흥미로운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최신 발견은 한 개인이 겪는 일들과 그의 인생 경험 이 그 사람의 뇌세포와 뇌의 작용 방식에 영향을 크게 끼칠 뿐 아니라 관련 세포들의 게놈(유전체)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태적인 인간 정신

최신 연구 결과 중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뇌파들의 각종 주파수에 따라 뇌의 여러 영역 간 협응 과정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이 중요한 것은 이전까지 생각했던 것보다도 우리의 뇌가 훨씬 더 동태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추천 소책자

한·일 관계 –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로 보기

일제강점기부터 위안부·강제동원 합의까지

김승주·하세가와 사오리 지음
노동자연대, 132쪽, 5,000원

※ 구입 문의: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한·일 관계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로 보기



노동자연대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노동자연대 TV X 도서출판 책갈피 온라인 토론회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출간 기념 저자 초청 토론회

기후 위기,
해결할 시간과
방법이 있을까?

저자

장호중

신간

9월 13일(수) 오후 8시

유튜브 실시간 방송

노동자연대 TV



▶ 5면에서 이어짐

생각이 유행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창조물로부터 소외되는 경향 때문이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마르크스는 중요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자본주의 생산 체계는 사람들을 원자화 시키고 사람들이 자신을 커다란 기계 속 작은 부품에 불과하다고 여기도록 만드는 탓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것(컴퓨터도 여기에 속합니다)을 마치 외부의 어떤 적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인간 노동의 산물인데도, 마치 인간의 통제 바깥에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로 인한 위협이 모두 허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기차나 다른 직군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미사일을 퍼붓는 드론이 전쟁에 투입되면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컴퓨터 자체가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실수일 것입니다. 그 보다는 자본주의가 조직되는 방식 그리고 자본주의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이 진짜 위협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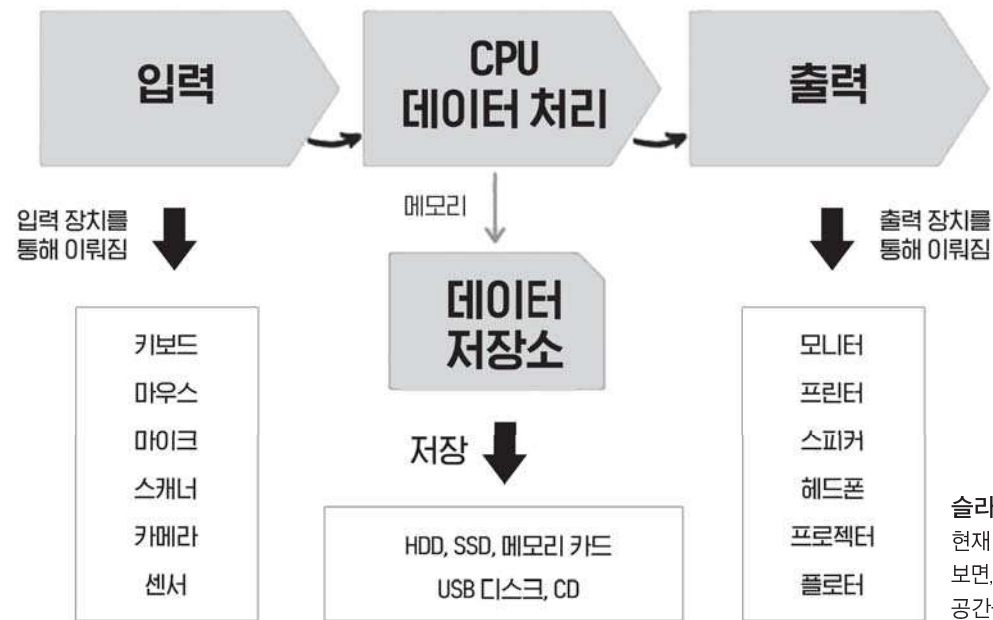
컴퓨터 프로그램을 인간의 뇌와 동급으로 여기는 것이 왜 잘못된지를 설명하려고 준비한 슬라이드입니다.(슬라이드2)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컴퓨터의 경우에는 자료가 입력되면 CPU가 이를 처리해서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가 자신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각하고 있다는 증거는 전무합니다. 반면, 인간의 뇌는 외부 세계에서 자료를 얻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외부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려고 의식을 사용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컴퓨터가 점점 진화하다 보면 그런 차이도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챗GPT 같은 최신 프로그램들은 그 바탕 알고리즘에 “신경망”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신경망”이 인간의 뇌에 있는 신경세포 조직과 유사한 구조를 한

컴퓨터 CPU의 기본 기능



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공 “신경망”과 인간의 뇌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컴퓨터 프로그램의 인공 “신경망”은 온·오프 스위치에 불과합니다. 0이거나 1이거나, 둘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반면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인간의 신경세포는 그 자체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고, 이를 단순한 온·오프 스위치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슬라이드3)

인공지능의 위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흔히 펴는 또 다른 주장은 뇌의 생물학적 구조가 컴퓨터와 비교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든, 인간 뇌의 “웨어”든 그 차이는 중요하지 않고 결국 소프트웨어 차이가 전부라는 것이고 그래서 뇌를 대단히 복잡한 전자회로 정도로 여깁니다. 그리고는 언젠가는 컴퓨터가 비슷한 수준의 복잡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뇌의 신경세포들은 분명 전기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뇌 속에서는 그것 말고도 훨씬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점을 한사코 못 본 척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뇌의 작용 방식은 선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형회로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훗날 컴퓨터가 위협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뇌가 컴퓨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미묘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사람들은 왜 컴퓨터가 인간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 답은 앞서 제가 소개한 카를 마르크스의 소외론에서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세계를 소외된 방식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인간 의식

지금까지 저는 인간의 의식을 아주 긴 시간 규모로 다뤘습니다.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현대 사회만의 중요한 차이점도 봐야 하는데 바로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이래 대부분의 기간을 수렵 채집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사회에는 계급도 없었고,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만 년 전 농업 혁명이 벌어지고 최초의 도시와 문명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명이 건설됐고, 이제 우리는 대규모 교통수단이나 80억 인구를 먹여살릴 능력 등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계급 분단과 수많은 다른 분단(성차별,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 등)도 생겨났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구성원 다수가 사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럴 때에도 달리 대안이 없다고 여기기 십상입니다. 자본주의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부딪힌 문제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거나, 젠더나 국적이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해 버리고 자본주의 자체가 원인이라는 점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도구나 노동 생산물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해 버리고 자본주의가 우리를 체계적으로 억압하고 분열시킨다는 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피면, 사람들이 이런 분열에 도전하고 자본주의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꿰뚫어 본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영국은 아주 흥미진진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아주 오랜만에 각종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파업 노동자들은 인플레이션 등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현실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남한에도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에 맞서 자랑스러운 투쟁을 벌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대중 투쟁이나 혁명이 벌어졌을 때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은 그런 투쟁 과정에서 사람들의 의식이 대단히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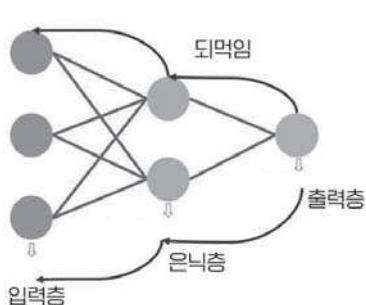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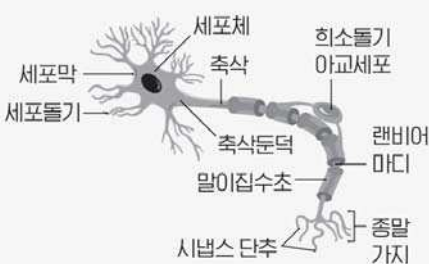
제 책에서는 사람들의 의식이 이렇게 삼시간에 변하는 현상을, 인간의 뇌가 무척 동태적이라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이려 했습니다.

미래에 인공지능이 실업을 야기하거나 살상용 전쟁 무기에 이용될 위험을 과소평가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려는 시도에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제의 원인은

▶ 7면으로 이어짐

신경세포의 구조



슬라이드3 컴퓨터의 “인공 신경망”보다 뇌의 신경세포는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수감된 러시아 사회주의자 보리스 카갈리츠키에게 힘이 되자

현재 수감된 러시아의 반전 사회주의자 보리스 카갈리츠키를 내가 처음 만난 것은 1989년 3월 모스크바에서였다. 당시는 소련 말기였다. 당시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 정책은 점점 더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었다.

당시 고르바초프는 소련 국가자본주의를 현대화하려고 시장 경제 정책을 더 많이 도입하고, 정치적 억압을 완화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경제 붕괴, 정치·사회 반란, 군사 쿠데타 미수, 국가 해체였다.

이후 시장 자본주의로의 잔인한 전환 과정에서 인구 다수가 빈곤에 빠졌고, 이런 상황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권력을 장악하고 지지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그 시기에 보리스 [카갈리츠키]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반(反)스탈린주의 사회주의자로 떠올랐다. 그는 1982~1983년에 처음으로 수감됐다. 그는 최근 러시아 북부 코미공화국의 수감시설에서 보낸 편지에서 지금은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말했다.

우리가 처음 만나고 얼마 후 보리스는 아이작 도이처 기념상을 수상한 그의 첫 저서 《생각하는 갈대》의 수상 기념 강연을 위해 런던에 왔다. 열광적인 청중 중에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들도 많았다. 강연 후 나는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고(故) 아이작 도이처의 부인이자 소련 정치 전문가인 타마라 도이처의 집에서 그를 만났다.

《생각하는 갈대》는 19세기와 20세기 혁명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러시아 지식인들의 역사를 다룬 책이다.

보리스 자신이 학식이 풍부하고 여러 언어에 능통하며 유머와 매력이 넘치는, 이 지식인 집단의 살아있는 사례



8월 29일 보리스 카갈리츠키의 생일을 기념해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시위가 열렸다

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일관되고 헌신적인 반(反)자본주의자이자 반제국주의자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 번도 정치 전략을 놓고 견해가 일치했던 적이 없다. 보리스는 20세기 초 프랑스 사회주의자 장 조레스가 한 “개혁과 혁명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적응하는 관계”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따랐다.

실천에서 이것은 일종의 급진적 개혁주의를 따르는 것, 보리스 자신이 “혁명적” 또는 “돌이킬 수 없는” 개혁이라고 부른 것을 통해 자본주의의 구조를 바꾸려는 것을 뜻한다.

새로운 야만

안타깝게도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와 돌이킬 수 없는 개혁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언제나 보리스는 현대 자본주의의 “새로운 야만”(보리스의 표현)에 저항하는 전 세계 항의 운동의 최전선에서 있었다.

200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

대하는 운동이 한창일 때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린 포럼과 집회에서 만났다. 마지막으로 그를 본 것은 2014년 런던에서 ‘전쟁저지연합’이 주최한 나토 반대 집회였던 것 같다.

보리스가 항상 적절한 정치적 제안을 한 것은 아니다. 러시아판 신자유주의의 잔인함과 부패에 넉달머리가 난 나머지, 그는 서방 제국주의와 서방의 중동부 유럽 동맹국들에 반대하다가 때때로 이데올로기적 반동 세력과의 동맹이라는 유혹에 빠지기도 했다.

그래서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일어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란을 “혁명적 운동”이라며 환영하는 실수를 범했다.

그러나 보리스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단호하게 반대했다. 그는 “2022년 전쟁의 동기는 대부분 순전히 러시아 국내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탓에 무너진 정권에 대한 지지를 회복하려는 시도였다”는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푸틴 정권은 이런 보리스를 “해외 첩자”로 낙인찍었고, 이제는 “테러를 정당화”했다는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보리스 자신이 말했듯이 그는 “오랫동안 이라크·시리아·리비아·유고슬라비아 침공을 일관되게 비판하고, 주권 국가에 대한 폭격과 내전 간섭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이들 나라의 대중과 연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보리스와 러시아의 다른 반전 수감자들에 대한 연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보리스를 지지하는 여러 서명 운동 중 하나(freeboriskagarlitski.tildaws)는 이제 나머지 서명 운동들을 아우르는 연합적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카갈리츠키에게 자유를”이라는 텔레그램 채널도 있다. 이 채널은 8월 29일 보리스의 65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온라인 시위를 조직하는 데 기여했다.

9월 16일에는 더 많은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 러시아 정권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들이 국제 여론을 의식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리스와 그의 동지들을 위해 목소리를 더 키워야 한다.

출처 Alex Callinicos, 'Back jailed Russian socialist Boris Kagarlitsky' (2023. 9. 05) / 번역 박이랑

▶ 6면에서 이어짐

자본주의 체제이지 컴퓨터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컴퓨터는 그저 도구이자 기계일 뿐입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의 의식은 정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엄청난 교통 수단이나 엄청난 도시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과 4만 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지구 표면에 바짝 붙어 입에 풀칠하기에 바쁜 존재에서 이제는 우주로 심지어 태양계 너머로까지 로켓

을 보내는 존재가 됐습니다. 컴퓨터 기술은 이런 업적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재앙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지구에서 벌이는 일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문명 자체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대규모 환경 파괴, 전례 없는 규모의 생물 멸종 같은 일들이 오늘날 자본주의 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나라에서 정치인들은 그

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뭔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 그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간 인류가 이룩한 과학과 기술을 대단히 사랑하지만 동시에 과학자로서 사회주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혁명 말고는 과학과 기술이 인류를 낙원이 아니라 재앙으로 이끄는 것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 사회주의 사회에서 컴퓨터 기술은 세계를 더 윤곽하게 만드는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고, 그 잠재력은 오늘날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흥미로운 질문과 의견들을 기대하겠습니다.

번역 김중환



홍범도 — 러시아 혁명에 고무받았던 민족 해방 투사

윤석열이 광복절 기념사를 시작으로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육군 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기로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좌파 경력을 문제 삼아 좌우 모두 업적을 인정했던 독립투사를 도려내겠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전반의 우경화 추구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올해 3월 출간된 《민족의 장군 홍범도》(이동순 지음, 이하 책)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일생을 다룬 평전이다. 800쪽이 넘지만, 그만큼 홍범도의 행적을 상세히 알 수 있다. 저자가 문학과답게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서술했다.

저자의 조부 이명균은 독립운동 단체 '의용단'을 이끌었고, 대구형무소에서 고문으로 순국했다. 저자는 이런 집안 내력이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밝힌다.

홍범도는 1868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 부모를 모두 여의고 머슴살이, 공장 노동자, 포수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 갔다.

당시 조선 민중은 탐관오리의 수탈·억압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빈곤을 벗어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간도·연해주 등지로 이주했지만, 그곳에서도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였다.

홍범도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마수가 뻗던 20대에 간도·함경북도 등지에서 의병 투쟁에 나선다. 당시부터 신출귀몰한 용병술과 뛰어난 리더십, 인품으로 이름을 날렸다.

한일 병탄 이후에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러시아령인 연해주로 이동해 항일 무장 투쟁을 준비한다. 1918년 러시아령에서 창당된 한인사회당, 1919년 국내의 3·1 운동, 이후 상해 임시정부 등과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 받았다.

홍범도는 특히 흠뻑 들어 독립군들을 조율하고 연합시켜 1920년 봉오동-청산리 등 가장 성공적이었던 항일 전투들을 지휘했다.

윤석열 정부는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이력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홍범도가 한창 항일 무장 투쟁을 벌이던 때에 볼셰비키와 러시아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에 참석한 홍범도

혁명 정부는 노동계급 국제주의를 표방하며 러시아 제국의 옛 소수민족들에게 민족자결권을 선포했고, 그 영역을 넘어서는 피억압 민족의 해방 운동을 지지·지원했다.

그때 일본군이 러시아 내 반혁명 백군을 지원하려고 연해주·시베리아에 출병했다.

홍범도와 러시아 혁명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라는 공동의 적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압박·착취 없는 새 나라

이 책에서는 1915년부터 러시아 영토에서 은거하며 무장 투쟁을 준비하던 홍범도가 우연히 러시아 혁명을 직접 목격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1917년 정사년 10월,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 무렵 홍대장은 우연히 페트로그라드에 갔다가 도심을 휩쓸어가는 혁명의 파도를 두 눈으로 직접 보았다. ... 홍범도 대장은 가난한 백성이 땅의 주인이 되고, 압박과 착취가 없는 새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그 가혹하고 아름다운 혁명의 취지에 우선 공감했다. ... 식민지 조선을 비롯한 전 세계 다른 약소국가 피압박 민족들 사이에서도 들판의 불길처럼 그

혁명운동이 활활 번져갈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실제로 러시아 혁명은 식민지의 민족 해방 운동을 고무했다. 한반도에서는 1919년 3.1운동을 고무해 침체돼 있던 항일 무장 투쟁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는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벌이는 시발점이 된다.

코민테른(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이 소집한 1922년 극동민족대회에 홍범도는 조선 대표 52명의 한 명으로 참석했다. 모스크바 대회장에선 "일본 대표도 일부러 [홍범도에게] 찾아와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시했다." 대회장은 "시종일관, 그야말로 국제적 친선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홍범도는 이때 레닌과 트로츠키를 직접 만나기도 했다. 책에서는 레닌과의 면담이 신뢰와 호의 속에서 이뤄진 분위기가 잘 묘사된다.

이처럼, 러시아 혁명은 홍범도와 같은 위대한 독립 투사들을 고무하고 지원해 신뢰를 얻었고, 한국 독립운동은 초기부터 국제적인 반제국주의 투쟁과 세계 혁명의 일부로 자신을 보는 시야를 갖추고 있었다. 이는 양측 모두 — 그리고 지금 우리가 — 자랑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레닌이 죽고 트로츠키가 스

탈린에 밀려 축출된 이후 러시아 정부의 태도는 스탈린과 관료하에서 변한다. 이후 홍범도의 투쟁과 삶도 고난을 겪는다.

스탈린과 관료들은 자국 보호를 우선하고 대러시아 국수주의를 부활시켰다. 일본을 자극할까 봐 극동의 항일 투쟁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베리아와 연해주의 고려인들(카레이스키)을 중앙아시아로 대거 강제 이주시켰다. 홍범도도 이때 강제 이주를 당해 고생스런 노년을 보낸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시 참변에 러시아 공산당과 홍범도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완전한 왜곡이다. 자유시 참변은 당시 복잡한 동북아·극동 정세 속에서 한인 독립군끼리(불행하게도 친공산주의 계열 간 분열로) 갈등이 무장 충돌로까지 번진 사건이다.

책은 당시 홍범도가 한인 친공산주의 두 분파 사이에서 중립을 취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한 분파 청년들로부터 피습당해 생명을 잃을 뻔한 사건을 소개한다.

또한 극동민족대회 때 레닌과의 면담에서 이 문제가 다뤄진 일화도 전한다. 레닌이 자유시 참변의 경위를 묻자, 홍범도는 자신의 평가를 말하며 체포된 독립군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레닌은 즉시 석방을 지시했다.

이 책은 레닌 정부를 우호적으로 다루고 스탈린 정부를 혹독하게 비판하는 것도 장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역사 전쟁을 벌이며 왜곡하는 홍범도 장군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임준형



민족의 장군 홍범도

이동순 지음, 한길사, 840쪽, 28,000원